

##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 1. 기본정보

학과	영어영문학과	이름	김*선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파견기간	2018.02~06
귀국여부	'아니오'인 경우 귀국예정일을 알려주세요.		

###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학교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있을 거는 다 있어요. 서점, 카페, 스시 가게, 샌드위치 가게, 도서관, 운동하는 곳 등등 있어서 편리했습니다.</p> <p>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자유로운 것 같아요.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을 볼 수 있습니다.</p>
2018-1학기 수업	<p>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p> <p>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p> <p>하루에 4시간 정도로 수업은 진행되었고 낮반은 오후에 높은 반은 오전에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내용은 reading, writing, listening 이렇게 크게 세가지로 나뉘어서 한 주에 한가지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과제는 꽤 많은 편인 것 같은데 익숙해지니 하루에 1시간 정도만 투자해도 다 끝낼 수 있었어요. 일단 과제만 성실하게 해가면 수업 진행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도 없었어요. 그리고 같은 반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시간이 수업 중에 많아서 말하기랑 듣기 실력 높이는데 좋은 것 같아요. 한 반에는 16~18명의 학생들이 있고 다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에요. 팀 과제도 있는데 그렇게 까다로운 편은 아니지만 좀 귀찮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시험을 보는데 쪽지시험 개념이고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p>
프로그램	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

운영	<p>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꽤 자주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종류도 다양한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다른 문화를 경험하거나 새로운 음식을 접해볼 수 있어요. 또 홈스테이 사무실도 있는데 홈스테이에 문제 있거나 하신분은 언제든지 찾아가서 도움 받으실 수 있어요.</p>
----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2월부터 아마 5월까지의 긴팔 긴바지 입고 다녔어요. 엄청 춥진 않은데 쌀쌀하고 비가 오면 으슬으슬 몸이 떨려서 얇고 긴 옷 여러 개 가져오셔서 입고 다니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기후는 온화한 편이고 그렇게 일교차가 심하지 않아요.</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한국만큼 안전해요. 밤에는 상점들도 거의 다 문닫아서 좀 위험하긴 하지만 노숙자들만 조심하면 별일 없을 듯 해요. 차이나타운은 낮에만 가봤는데 홈스테이 아주머니가 밤에는 절대 혼자 다니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p>
숙소	<p>학교기숙사( ) 홈스테이 (v) 외부 숙소( ) 기타( )</p> <p>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저는 필리핀 가정에서 지냈는데요. 아주머니가 굉장히 친절하시고 음식도 거의 입맛에 맞는 편이었어요. 두분 다 일하셔서 거의 저녁만 같이 하고 저녁식사하면서 이것 저것 이야기 하는 편이었어요. 청소는 일주일에 두번 정도 해주시고 빨래는 주말에 몰아서 했어요.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p>
식사	<p>학교 Meal Plan ( ) 학교식당 개별이용 ( ) 홈스테이 (v)</p> <p>외부식당 (v) 직접 요리 ( ) 기타 ( )</p>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아침은 거의 홈스테이에서 시리얼이나 과일, 빵을 먹었어요. 점심은 레프트오버나 대부분 샌드위치를 싸서 다녔어요. 저녁은 매일매일 새로운 음식을 해주셔서 홈스테이 가족들이랑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가끔 친구들이랑 놀러다닐때에는 외식을 하곤 했어요. 한번 할때마다 거의 15달러 정도 쓴 것 같아요.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 첫 두달은 Monthly Pass를 구입해서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사실 홈스테이 집이랑 학교랑 가까운 편이어서 5월부터는 교통카드 (Compass Card)에 소량의 돈만 넣어서 놀러다닐 때만 쓰고 등교 하교할때는 걸어다녔어요.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050,000	델타 항공
Fees	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 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	
보험료	자매대학에서 권하는 보험을 샀는지,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사갔는지 여부 및 보험 비용을 알려주세요. 130,000	현대해상여행자 보험
숙소	한달에 약 700,000	한달에 830 CAD
식비	300,000	
교통비	90,000	Monthly pass 97CAD
책값	X	
기타1	400,000	시애틀 여행
기타2		
합계	약 7,000,000	

##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필기구류는 캐나다가 확실히 한국보다 비싼 편이라 한국에서 사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1학기때 캐나다 오시는 분들은 4월 5월까지도 생각보다 많이 추워요. 그래서 겨울옷 많이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밤에도 추워서 전기장판 깔아서 썼어요. 음식은 여기도 한인마트가 되게 잘되어있어서 딱히 사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인 식당도 있어서 한국 음식이 되게 그립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밴쿠버가 꽤 큰 도시라 여러 문화를 체험하고 다양한 나라 음식 도전해보고 그러기에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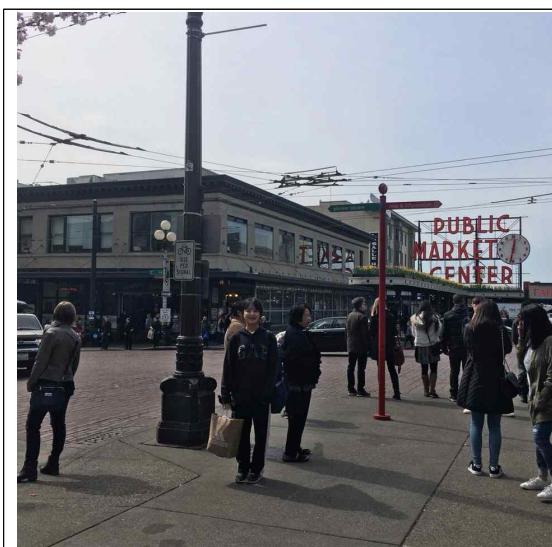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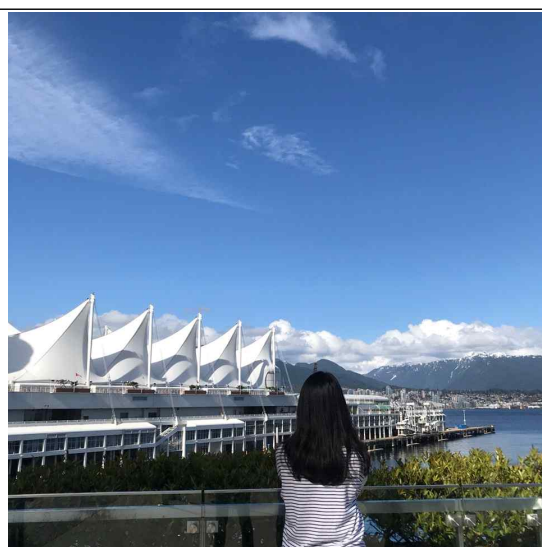
(분량 자유)

4개월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졸업하기 전에 정말 좋은 추억을 하나 남긴 것 같아 후회 없습니다. 사실 오기 전에는 취업도 준비 해야 하고 곧 졸업도 해야 하는데 가는게맞나 생각이 들었지만 S-flec수업 들은게 아까워서 오게 되었는데 안 왔다면 정말 후회할 정도로 좋은 경험을 하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가 다양한 나라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라 그런지 정말 다양성을 느끼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4개월 동안 지내면서 크게 영어 실력이 향상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에 와서 여름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도 하고 봉사 활동을 하면서 다음 마지막 학기를 준비할생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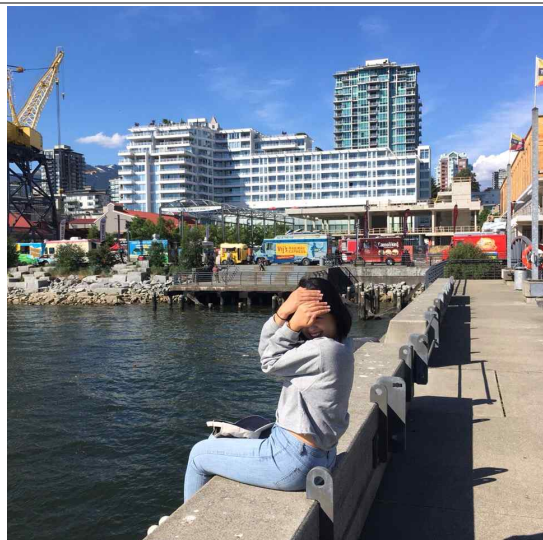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시애틀 여행



캐나다 플레이스



노스 밴쿠버 야시장



딥코브 등산



빅토리아 여행



잉글리시 베이

